곰인형과 타올

(행15:1~35)

1.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3.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4.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5.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곰인형과 타올>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5개월 미만의 영아들의 경우에는 곰인형을 갖고 놀 때, 곰인형을 손으로 잡아서 그 아이로부터 조금 떼놓습니다, 그러면 좀 멀리 떨어진 곰인형을 쳐다봅니다.
그런 다음에 좀 큼지막한 타올을 가져다 그 곰인형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눈이 뚱그래서 보고 있다가 곧바로 자기 곰인형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곰인형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아동심리학적으로 말해서 '대상영속성이 아직 이 아기에게 형성되어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상영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물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이 아는 겁니다.

이 대상영속성이 생후 6개월부터 차츰 생기기 시작하는데 5개월 때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예 그 존재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 대상영속성이 생겨나야 비로소 어머니와의 인격적인 관계도 가능해지기 시작해요.
즉,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 대상영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대상영속성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혼을 했는데 직장에 나갑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 아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결혼했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내가 보이지 않아도 그 아내를 마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영속성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마음으로 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요, 쉽게 말하자면.

결국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상영속성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년이 되었습니다, 성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경험 해볼 만한 것 다 해본 장년이 되었고, 이제는 무르익은 지혜가 나올 만한 노년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대상영속성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활 속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해버리면 그 마음에 타올만 보이는 거예요.
그 충격적인 상황이 타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덮어버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나갈 것인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주님께서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잠을 주무신 것은, 그리고 반대로 제자들이 풍랑 만나 배 위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유는 대상영속성이 유지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기 않기 때문이에요.
타올이 하나님을 가려버린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풍랑이라는 타올이 덮여있어도, 그 풍랑이라는 타올 밑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주어지는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대상영속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언제나 내가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내 앞에 계시는데, 그 사실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그런 걱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면서도 걱정을 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은 없지요, 그러니까 안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대상영속성을 유지할 수 없을까요?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할례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할례가 있어야만 하나님에 대한 대상영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안디옥교회에 예루살렘교회로부터 몇 사람이 방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안디옥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안디옥교회에 있는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정한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안디옥교회가 갑자기 뒤집혀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람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논쟁, 특히 신학적 논쟁이라는 게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게 쉽게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결정을 내는가 하면, 예루살렘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보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자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 사람을 붙여서 이 안건을 가지고 예루살렘교회에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가다 보면, 예루살렘교회에서도 크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도 5절에 이방인을 선교했다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 중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섭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라'고.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이방인들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말대로 '우리도 하지 못한 것을 하라고 짐을 지우는 것과 마찬가

지다'고 해서 할례의 요구가 묵살됩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 것과 음행하지 말 것과, 여기서 음행이란 당시 이방사회 어디서든지 신전에서 예배의식으로 벌어지던 신전의 창녀와의 행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방사회에 비일비재 했었던 근친상간을 말합니다, 그걸 하지 말고, 목매어 죽은 동물의 고기나 피를 먹지 말 것을 결정합니다.
근데 나중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사도바울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합니다.
신앙적 자유와 양심에 의해서 믿음 안에서 잘 판단해서 하도록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할례에요.
이 바리새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들고 나와서 이방인들에게 요구하게끔 된 데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가 갖는 의미가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실 때의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서 끊어지리니 이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선민에서 끊어진다는 것이고, 구원 받은 백성에 포함되지 못하고 내쳐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였다는 표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으니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무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할 포인트는, 정확하게 말하면 할례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할례의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다른 차원의 할례가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신체상의 양피를 제거하는 할례는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할례를 행했거나 안 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례가 갖고 있었던 본래의 의미는 그대로 살아서 업그레이드된 채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에게도 요구되고 있어서 사도바울이 곳곳에서 이 할례의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행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정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혈통이 이방인일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테반조차도 사도행전 7장의 설교 중에서 '귀와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라고 유대인들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할례가 뭘까요?
할례의 언약을 체결하시던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할례의 의미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너는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전능한 내 앞에서 행함으로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바로 할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얘기하십니다.
이건 언약 중에 하나님이 지키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 가운데 만국의 아비가 되게끔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언약의 상대방인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에요.
이 할례를 왜 행하는 겁니까?
전능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살 속에 할례가 있음을 기억함을 통하여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할례의 의미가 가장 모범적으로 실제 삶 속에서 실현된 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 만나는 현장입니다.
자, 보세요.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했어요, 이게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가장 모범적으로 실현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군대가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다윗이 형들에게 줄 도시락을 갖고 갔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온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고 있고, 그 앞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그 사이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기골이 장대한 장수가 하나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아무도 그 골리앗과 맞서 나가 싸우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보고 있는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도대체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게 할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전능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할례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행해야 되는 거고 선민이 행해야 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골리앗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자신이 할례 받은 걸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 왕부터 전부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 블레셋 군대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골리앗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봤다면 그 마음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열일곱 살짜리 양치기 다윗이 이 전쟁터에 왔어요.
블레셋 군인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할례를 기억해냅니다.
할례의 의미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 블레셋 군인을 보니 할례를 못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할례로부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누구 앞에 있을까? 저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부딪혀옵니다, 왜냐하면 전능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영이 부딪혀왔을 때 갑자기 용기가 생기는데, '내가 저놈의 목을 베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리라!' 자신감이 팍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나가서 돌맹이로 골리앗을 때려눕힌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되는 상황이 덮쳤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사업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 된다는 상황이 타올이 돼서 하나님을 가려버립니다.
마치 골리앗이 타올이 돼서 하나님을 가려버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상황 중에 어떤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게 타올이 돼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려버립니다, 우리는 그 타올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창호지 문에 가려진 채로 안에 왕이 계시면, 문 때문에 안 보여도 밖에 있는 내관들이나 상궁들은 왕이 있는 것으로 알고 행동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내게 주어진 상황이 급박하고 마음에 안 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위기처럼 보여도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타올처럼 가려져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보이는 것은 마음에 할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도했던 경험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 받게 하셨고 이미 실천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육체의 할례를 행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그 옛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던 의식과 똑같은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골리앗 같은 상황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게 가리는 효과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가리는 효과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보이게 됩니다.
대상영속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의 타올이 우리 앞에 전개되더라도 그 타올 뒤에 가려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타올에 대해 죽을 때, 타올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자식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직장문제, 내 신체상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타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골리앗이 보이지만 골리앗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꾸 이론적으로 있다, 있다, 그러지만 말고 마음에 보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마음에 보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앞에 있는 골리앗 같은 상황에 대해 죽게 되고,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내려오는 지침이 있는 거예요.
내려오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 기운을 따라 골리앗 같은 타올을 제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 나가는 거죠.
'마음의 할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곰인형과 타올, 이 비유를 기억하며 어디를 가든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던 그 대신에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짐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여 온전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